http://doi.org/10.34227/tjocc.2023..29.169

# 다문화 이주민의 디지털 격차 진단과 영향요인 연구*
#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민과 일반 국민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조경재**, 황용석***

**국문초록**

이 연구는 디지털소외계층을 다문화 이주민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자료분석을 통해 확인하기 위함이다. 한국에서는 디지털 격차 정책의 일환으로 4대 정보소외계층(장노년·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 위주의 지원정책이 있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다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격차 정책 역시 이주민에 대한 수용을 반영하는 프레임 확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통해 국내 다문화 인구를 구성하는 주요한 집단인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간의 비교를 통해 디지털 격차 실태를 실증적으로 탐구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일반국민 집단과 다문화 집단 사이에는 디지털 정보 접근·역량·활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결혼이주민은 PC 위주의 자본향상적 정보 역량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각 집단별로 PC/모바일 기기를 통한 자본향상적/여가적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결과, PC 이용 역량과 디지털 접근 기기 다양성이 모든 회귀 모델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소득이 증가하면 모바일 기기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결혼이주민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PC 활용 및 모바일 기기의 자본향상적 활용이 증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주민 집단인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민의 디지털 격차 발생을 이해하고, 추후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에 대한 함의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디지털 격차, 디지털 포용, 정보격차실태조사

---

* 본 논문은 2023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제1저자,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커뮤니케이션학 석사 수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임연구원(Assistant Researcher,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Professor, Konkuk University,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접수일(2023년 11월 22일), 게재 확정일(2023년 12월 1일)

## I. 서론: 다문화 이주민을 포용하는 디지털 격차정책의 필요성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를 거쳐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양극화 심화는 지속가능성과 포용을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게 했다. 2009년 세계은행에 의해 그 용어가 전파된 이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국제적으로 그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1]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성, 불평등 해소를 장기적 발전을 위해 고려할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디지털을 통한 사회복지와 통합을 추구하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포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2]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정보화 추진 초창기부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보화 초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점차 정보취약계층에 집중한 인터넷 접근성 및 활용 증진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때 정보취약계층(또는 정보소외계층)이란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 접근 또는 이용이 어려운 계층[3]으로, 국내에서는 장노년·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을 4대 정보취약계층으로 지정하여 정보격차실태조사, 정보화 지원 정책 등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0년 발표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에서도 장애인, 고

---

1) 배영임, 「기술혁신 관점의 포용적 성장 정책 연구 : 디지털 포용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경기연구원, 2022, 11-20쪽.

2) 디지털 격차(또는 정보 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3호)

3)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 제1호

령층, 농어민 등 기존 4대 정보취약계층을 주요 정책 수요자로 정의하고 있다.[4)]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소외를 겪고 있는 집단은 다양하며, 보다 세분화된 관점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다문화를 이루고 있는 이주민 집단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주 배경이나 한국 생활에 있어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사회 적응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어 능력, 소득수준, 문화 차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정보화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북한이탈주민 역시 디지털 격차 관점에서 조명이 필요한 다문화 집단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자국의 정치적 상황과 그로 인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였다는 점에서 난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동일한 문화권과 언어를 공유한다는 멤버십을 갖추고 있으나, 북한에서의 삶의 터전을 떠나 남한 사회와 정보화 수준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도 2012년부터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신(新) 정보소외계층으로 선정하여 기존 4대 취약계층 대상 조사에 더해 추가적인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인구수는 매년 증가해왔으며, 2018년에는 한국의 다문화 가구원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한국사회 구성원의 인종·문화적 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의 디지털 정책 역시 소외된 이주민 집단을 포용하는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일반국민과 비교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역량과 활용의 격차를 겪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구체적인 디지털 격차 양상을 탐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부처합동,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2020, 41-42쪽.

색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으로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탐구하려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다문화 이주민의 삶의 질과 디지털 격차

### 1.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국제사회에서 이주민(migrant)은 일반적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출신국, 특성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5] 한국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세계화 및 국제화의 영향으로 근로이민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였으며,[6]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이주민은 240만여명에 이른다.[7] 국내 이주민 중에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혼이민여성과 북한이탈주민이다.[8] 소수자로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과정은 많은 연구들에서 비교·연구되어온 바 있다.[9]

결혼이주민은 결혼을 매개로 한 자발적 이주민으로, 한국의 경우 1995년 이후 결혼중개업 및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빠르게 그 비중을 늘려왔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를 찾지 못한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남성이 경제력이 약한 아시아

---

5) 정다운, 「스마트폰 이용이 북한이탈주민의 이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1-76쪽.

6) 강혜정·김석주, 「다문화 정보격차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4권(제2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20, 1-21쪽.

7) 「'이주민'이라서 차별받는 사람들」, 『이로운넷』, 2021년 03월 03일자.

8) 장명선·김선욱, 「이주여성의 취업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결혼이민여성과 북한이탈주민여성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제7권(제1호), 한국공공사회학회, 2017, 164-204쪽.

9) 신승윤, 「신 (新) 소외계층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1-99쪽.

권 국가 출신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특성상 매매혼적 성격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학대와 폭력, 부적응과 부정적 편견 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10]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생활에 대한 지식과 언어가 습득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 정보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11]

결혼이주민 외에 한국사회의 특징적인 이주민 집단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을 들 수 있다.[12]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된다.[13] 국내 북한이탈주민은 2000년대 이후 증가하여 연간 입국 2~3,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2년 김정은 체제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 기준으로 229명이 입국하였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집단별로 살펴보면 20대~30대 여성이 가장 높은데, 여성의 경우 탈북 이후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결혼하여 생활하거나 직업을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14]

이주민 집단으로서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비교하면, 먼

---

10) 김상찬·김유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43집, 한국법학회, 2011, 319-344쪽.

11) 두문영·조진경, 「중국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생애사 연구」, 『여성학연구』 제27권(제1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7, 109-141쪽.
임광현,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격차 해소전망에 대한 사회적 배경에 따른 인식차이분석」, 『한국정책연구』 제13권(제3호), 경인행정학회, 2013, 281-308쪽.
정준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 영향요인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제1호), 한국정책학회, 2017, 151-177쪽.

12) 북한이탈주민을 이주민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나, 분단 이후 남한주민과 다른 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다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문화다양성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기에 이주민 집단으로서 연구할 가치가 존재한다(윤인진, 2009; 송미영, 2012 재인용).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4) 손현진, 「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53호, 한국법제연구원, 2017, 109-147쪽.

저 둘 다 한국사회 적응의 과제를 가진 소수자 집단이자 여성이 주류화를 이루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자발적 이주민에 해당하는 결혼이주민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이주민적 성격뿐 아니라 난민의 특성[15]을 동시에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체류 이주민 집단인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특성에 있어서도 내용적 차이가 발생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직업선택과 취업, 의사소통문제, 가족관계 및 가정내 갈등, 탈북과정의 정서적 후유증, 남한사람들의 인식 등으로 인해 문제를 겪는 반면, 결혼이주민의 경우 문화적 인식 차이, 언어 장벽, 주변의 차별과 편견, 2세 교육문제, 배우자에 대한 신뢰 등의 문제가 적응의 과제로 대두된다.[16]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서 겪는 차별 경험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결혼이주민은 주로 인종 및 언어에 대한 차별을 겪는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도 문화적 차별과 북한에 대한 이념적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겪는다.[17]

이들 이주민의 사회적응 수준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며, 특히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이주민 포용에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왔다. 이

---

15) 국내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은 난민과 구분되어 난민법에서 정의하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제인도법상 '사실상의 난민'으로 간주되는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의 지위를 가진다(김영미, 2020). 특히 사회 수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난민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정다운, 2019), 탈북의 주요한 원인이 경제적 이유에 있다고 해도 그러한 경제적 결핍은 북한의 총체적 정치 불안정에 기인하고 있으며 탈북자 자신이 북한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에 기인한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인정과 관련해서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정치·경제적 및 인권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관점이 제시된다(손현진, 2017).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는 이주난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이론들이 참고되어온 바 있다(엄태완, 2016; 167-168쪽).

16) 박지혜, 「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주민여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1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서울: 서울대학교, 2012, 937-960쪽.

17) 권금상,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이주여성' 재현의 사회적 의미: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6권(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3, 39-81쪽.

민상 등(2020)[18]은 결혼이주민의 디지털 적응 정도가 한국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김세현(2019)[19]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지지 형성에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의 이용이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가 남한 주민들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김세현과 이혜수(2019)[20]는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난민의 정신 건강 및 삶의 질에 있어서도 ICT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된다.[21]

포용사회 구현에 있어 이들 다문화 집단의 한국사회 적응은 주요한 문제다. 두 집단 모두 한국의 다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인 동시에 출신 문화권, 차별경험 등에 있어 상이한 양상을 보이며 이주 배경에 있어 자발적/비자발적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각 집단의 디지털 격차 양상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이주민의 디지털 격차

디지털 격차 개념은 디지털 기술 및 정보의 보유 여부에 따라 사회적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시작되었다. 정보격차에 대한 관점은 정보화 진전에 따라 변화해왔는데, 초기의 정보격차 논의는 주로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physical access) 격차를 중심으로 이루어

---

18) 이민상·김동욱·조영민,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적응이 한국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1권(제2호), 서울행정학회, 2020, 23-61쪽.

19) 김세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디지털 기기 이용과 사회적 지지의 형성」, 『문화와 융합』 제41권(제3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357-390쪽.

20) 김세현·이혜수,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기기 사용과 한국사회 적응: 사회적 지지와 한국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20권(제1호), 한국정보사회학회, 2019, 19-43쪽.

21) Shah, S. F. A., Hess, J. M., & Goodkind, J. R., "Family separation and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on the mental health of refugee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1(9), e14171, 2019, pp. 1-13.

졌다. 접근 관점의 정보격차 논의는 정보격차를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the have)과 그렇지 못한 사람(the have-not)간의 단절로 바라보며,[22] 디지털 기기의 양적인 보급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제언했다.

그러나 사회의 정보화 진전과 정보기기 보급률 증가가 이뤄지면서 양적 접근 격차가 해소되어도 발생하는 질적인 정보 격차를 포착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는 역량(competence)와 활용(use) 격차로 발생하는 2차 정보격차(second-level digital divide),[23] 그리고 1·2차 정보격차로 인한 이익적 결과(beneficial outcomes)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3차 정보격차(third-level digital divide)[24] 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격차 담론의 진화 과정은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각 정보격차 수준은 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왔다.[25] 오늘날 완전한 디지털 포용은 접근의 질, 디지털 역량, 인터넷 활용의 다양성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여겨진다.[26]

또한 정보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기존에 논의되었던 정보격차가 새로운 형태로 대두되기도 한다. 1단계 정보격차의 경우 정보화가 진전된 사

---

22) 최두진·김지희, 「정보격차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산적 정보활용 방안」,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1-48쪽.

23) Hargittai, E., & Hinnant, A., "Digital inequality: Differences in young adults' use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 research* 35(5), 2008. pp.602-621.

24) Wei, K. K., Teo, H. H., Chan, H. C., & Tan, B. C., "Conceptualizing and testing a social cognitive model of the digital divid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2(1), 2011. pp. 170-187.

25) Van Deursen, A. J., Helsper, E., Eynon, R., & Van Dijk, J. A., "The compoundness and sequentiality of digital ineq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1, 2017, pp. 452-473.

26) Correa, T, "Digital skills and social media use: how Internet skills are related to different types of Facebook use among 'digital native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9(8), 2016, pp. 1095-1107.

〈표 1〉 디지털 격차 담론의 층위와 주요 논의 구분

* 화살표는 인터넷 기술 성숙도와 새로운 ICT기술의 출현 수준을 나타냄.

| | 디지털 격차 단계 | 주요 논의 | 주요 개념 |
|---|---|---|---|
| 높음 ↑ | 3단계: ICT 어포던스 (3차 디지털 격차) | - ICT 활용으로 얻는 결과 격차<br>- 개인의 온라인 행위 | 지식 격차(Knowledge Gap): 경제적 조건이나 일상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온라인 활동 능력이 없어 나타나는 격차 현상 |
| | 2단계: ICT 이용 (2차 디지털 격차) | - ICT 역량과 활용 격차<br>- ICT 기기에 대한 소유권, 접근과 활용 | 활용 격차(User Gap): ICT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없어 나타나는 격차 현상 |
| ↓ 낮음 | 1단계: ICT 연결성 (1차 디지털 격차) | - 물리적 접근성과 인터넷 연결성 격차<br>-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보급 | 접근성 격차(Accessibility Gap): 통신 기반시설이나 기타 요인의 부족으로 인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어 나타나는 격차 현상 |

출처: Liao, S. C., Chou, T. C., & Huang, C. H, "Revisiting the development trajectory of the digital divide: A main path analysis approach",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79, 2022, pp. 1-13.

회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정보격차 요인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단순한 기기 보유/비보유의 이분적 구분에 초점을 맞추던 전통적 접근 격차 담론에서 벗어나 접근의 질, 기기의 다양성 등 새로운 접근 격차의 담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27] 2019년 반 뒤르센과 반 다이크[28]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physical access)의 개념을 발전시켜, 서로 다른 종류 기기에 대한 접근 가능성(device opportunity), 디바이스와 주변기기의 다양성(device & perpheral diversity), 디바이스와 주변기기의 유지가능정도(device maintenance)를 포함하는 물질적 접근(material access)

27) Gómez, D. C., "The three levels of the digital divide: barriers in access, use and utility of internet among young people in Spain", *Interações: Sociedade e as novas modernidades* 34, 2018, pp. 64-91.

28) Van Deursen, A. J., & Van Dijk, J. A., "The first-level digital divide shifts from inequalities in physical access to inequalities in material access", *New media & society* 21(2), 2019, pp. 354-375.

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에 따라 기존 PC 기반 정보격차보다 스마트폰 격차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으나, PC와 스마트폰의 기기적 특성 및 이용 목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격차가 연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29)]

디지털 격차 해소가 디지털 포용에 중요한 선행 조건인 이유는,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적 격차와 소외를 확대·재생산하기 때문이다.[30)] 전통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 교육, 인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디지털 격차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된다.[31)]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소득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인종적 소수자에 속할수록 정보화의 역기능과 격차에 취약하다.[32)] 또한 알람과 임란(2015)[33)]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접근과 활용, 역량과 지불능력 등에 따라 디지털 기술에서 배제되면 주류 정보로부터 배제되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게 된다.[34)]

---

29) Lee, H.J., Park, N.S., & Hwang, Y.S., "A new dimension of the digital divide: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roadband connection, smartphone us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Telematics and Informatics* 32(1), 2014, pp. 45-56.
황용석·이현주·박남수·이원태, 「디지털 미디어 환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격차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6권(제2호), 2012, 198-225쪽.
Hyde-Clarke, N., & Van Tonder, T., "Revisiting the'Leapfrog'debate in light of current trends of mobile phone Internet usage in the Greater Johannesburg area, South Africa", Journal of African Media Studies 3(2), 2011, pp. 263-276.

30) Van Deursen, A. J., & Helsper, E. J., "The third-level digital divide: Who benefits most from being online?",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annual*.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2015, pp. 29-52.

31) Scheerder, Anique, Alexander Van Deursen, & Jan Van Dijk, "Determinants of Internet skills, uses and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second-and third-level digital divide", *Telematics and informatics* 34(8), 2017, pp. 1607-1624.

32) Tsetsi, E., & Rains, S. A., "Smartphone Internet access and use: Extending the digital divide and usage gap", *Mobile Media & Communication* 5(3), 2017, pp. 239-255.

33) Alam, K., & Imran, S., "The digital divide and social inclusion among refugee migrants",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28(2), 2015, pp. 344-365.

소수자에 대한 디지털 배제 문제는 이주민 포용 과제에 유의미한 쟁점이다. 대다수 결혼이민여성이 낮은 정보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국내 다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보격차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35]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는 다른 정보소외계층에 비해 구조적으로 복잡하며 자녀에게 대물림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다.[36] 북한이탈주민이 해당되는 난민 이주자집단 역시 디지털 환경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이 단순한 기술 접근 및 활용의 불평등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된다.[37]

많은 연구에서 이주민 집단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는 한국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어왔다. 김현경(2012)[38]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적 지지는 남한 사회적응 과정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남한 사회 문화 수용에 도움을 준다. 사회문화적 적응 뿐 아니라 취업 등 경제적 적응 역시 마찬가지인데, 송은희(2014)[39]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경제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접근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결혼이주민 역시 마찬가지로, 김세현과 이혜수(2019)[40]의 연구에 따르

---

34) Caidi, N., & Allard, D., "Social inclusion of newcomers to Canada: An information problem?",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7(3), 2005, pp. 302-324.

35) 김효정, 「결혼이민자 여성소비자의 디지털정보격차지수 결정 요인: 연령별 차이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56권(제3호), 대한가정학회, 2018, 217-232쪽.

36) 이홍재, 「결혼이민자의 모바일 정보격차가 한국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2차 정보격차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8권(제1호), 한국정책학회, 2019, 223-249쪽.

37) 최한용, 「스마트 격차와 정보 격차의 생태계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5권(제6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4, 299-313쪽.

38) 김현경,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질적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9권(제1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49-86쪽.

39) 송은희, 「탈북자의 남한사회에서의 경제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72권, 한국동북아학회, 2014, 197-214쪽.

40) 김세현·이혜수,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기기 사용과 한국사회 적응: 사회적 지지와 한국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20권(제1호), 한국

면 디지털 기기 활용의 증가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포용적인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다문화 이주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결혼이주민, 혹은 북한이탈주민 개별 집단의 정보 격차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적응 과정을 비교한 일부 연구들 역시 디지털 포용과 연결한 경우는 드물었다.

결혼을 매개로 이주해 온 결혼이주민과 북한의 경제·정치적 상황으로부터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적응·포용 양상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일반 국민과의 비교를 통해 통합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이주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 나아가 다문화 디지털 포용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들의 디지털 활용 방식과 PC/스마트폰 등 주로 활용하는 기기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다문화 이주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가 사회적 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이주민 집단의 디지털 격차를 일반국민[41]과 비교 탐색하려 한다.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1·2차 정보격차를 중심으로, 접근, 역량, 활용 각 정보화 층위별로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일반국민의 차이를 비교하여 격차 수준을 탐구한다. 먼저 기본적인 디지털 격차 수준에 대한 탐색으로서 첫 번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국내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은 일반국민과 격차를 보이는가?**

---

정보사회학회, 2019, 19-43쪽.

41) 원자료 출처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하여, 소외계층과 대조되는 한국 주류 원주민 집단에 대해 '일반국민'이라고 명칭한다.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격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김효정(2018)[42]은 결혼이민여성을 연령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디지털 격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으며, 고재훈(2012)[43]는 결혼이민여성의 정보접근과 활용 격차에 이민자 교육수준, 인적 자본, 배우자 변수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승윤과 엄석진(2019)[44]은 국내 결혼이민여성들의 인터넷 활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으며, 모바일기기 이용역량의 증진을 통해 사회적 계층이동을 실현하는 자본향상적 특성을 가지는 사회참여, 경제활동 등의 인터넷 활용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자의 한국사회 적응도에 따라 네트워킹, 사회참여, 경제활동 세 가지의 인터넷 활용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일반적 콘텐츠 사용 및 정보공유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자본 향상 및 경제수준 증진에 한국사회적응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격차 요인 중에서도 2차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유익한 결과를 창출하는 과정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 정보에 대한 역량(competences)과 활용(use)의 격차인 2차 디지털 격차는 최근 정보격차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45] 정보기

---

42) 김효정, 「결혼이민자 여성소비자의 디지털정보격차지수 결정 요인: 연령별 차이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56권(제3호), 대한가정학회, 2018, 217-232쪽.

43) 고재훈,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 결정요인 분석」, 『한국이민학』 제3권(제2호), 한국이민학회, 2012, 25-58쪽.

44) 신승윤·엄석진, 「국내 결혼이민자의 모바일인터넷 이용활동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2권(제2호),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9, 73-109쪽.

45) Scheerder, A., van Deursen, A., & van Dijk, J., "Determinants of Internet skills, uses and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second-and third-level digital divide", *Telematics and informatics* 34(8), 2017, pp. 1607-0624.
Lythreatis, S., Singh, S. K., & El-Kassar, A. N., "The digital divide: A review and future research agenda.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21359, 2021, pp. 1-11.

술 이용자 간의 질적 차이(quality of use divide)를 의미한다. 2차 정보 격차 중 활용(use)은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 자본 향상과 같은 능동적·창조적인 이용을 하는 것이며, 이는 디지털 기기의 이용시간이나 횟수와 같은 양적 활용, 그리고 정보의 생산적 활용 수준과 같은 질적 활용을 포함한다.[46] 디마지오와 동료들(2004)[47]은 인터넷 활용을 자본향상적 활동(capital enhancing activities)과 여가적 활동(recreational activities)으로 구분한 바 있다. 자본향상적 활동은 다양화된 정보 및 자원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도록 돕는 활동[48]으로, 정치적·행정적 정보를 찾거나, 커리어 기회를 탐색하거나, 금융·헬스 서비스의 정보를 상담하는 등의 활동이 해당된다.[49]

디지털 정보 활용에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함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 역량 수준 역시 디지털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왔다. 하지타이와 히낸트(2008)[50]가 18~26세 젊은 성인의 2차 디지털 격차를 주제로 실시한 연구 결과 교육 수준이 높고 풍족한 배경을 가질수록 자본향상적 인터넷 활동이 많았으며, 이때 인터넷 역량이 이를 매개하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상위 계층이 자본향상적 디지털 활용을 통해 더욱 가치를 향상시키고 그 결과 격차가 심화되는 순환이 형성되

---

46) Molnár, S., "The explanation frame of the digital divide", 2003, pp. 1-9.

47) DiMaggio, P., Hargittai, E., Celeste, C., & Shafer, S., "From unequal access to differentiated use: A literature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on digital inequality", *Social inequality* 1, 2004, pp. 355-400.

48) Dobransky, K., & Hargittai, E., "The disability divide in internet access and use",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9(3), 2006, pp. 313-334.

49) Van Deursen, A. J., & Van Dijk, J. A., "The digital divide shifts to differences in usage", *New media & society* 16(3), 2014, pp. 507-526.
Van Deursen, A. J., Van Dijk, J. A., & Peter, M., "Increasing inequalities in what we do online: A longitudinal cross sectional analysis of Internet activities among the Dutch population (2010 to 2013) over gender, age, education, and income", Telematics and informatics 32(2), 2015, pp. 259-272.

50) Hargittai, E., & Hinnant, A., "Digital inequality: Differences in young adults' use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 research* 35(5), 2008, pp. 602-621.

기에 취약계층의 정보 활용을 증진하는 것은 사회적 격차 해소에 중요하다. 특히 이주 특성(결혼이주민/북한이탈주민)에 따라 2차 디지털 격차에 대한 결정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구하는 것은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2차 디지털 격차의 선행요인이 정보 활용방식(자본향상/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다문화 이주민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의 탐구를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사용, 각 집단별로 디지털 정보 접근, 역량, 활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탐색한다. 이후 두 번째 연구문제의 탐구를 위해 각 집단의 디지털 정보활용을 종속변수로 둔 회귀모델을 비교하여, 각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차이를 탐색한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파이썬(Python3)의 판다스(pandas), 사이파이(scipy), 핑귄(pingouin), 사이킷-포스트혹(scikit_posthocs), 스탯츠모델(statsmodels)등의 패키지 등을 사용하였다.

### 1. 자료의 특성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한다.[5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지능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하여 시계열적 조사·분석을

5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특수상황의 교락을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통해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로,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일반 국민과 정보취약계층(장애인·장노년·농어민·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총 15,000명의 디지털정보화 수준(PC·모바일 등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인터넷 이용 등 디지털정보에의 접근·역량·활용 수준)과 정보 이용태도 및 기타 정보사회인식관련 항목을 측정한다.[52] 본 연구대상인 일반국민 집단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에 대해 설정한 조사모집단 및 표집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분석자료의 특성

| 조사대상자 | 조사모집단 | 표집방법 |
|---|---|---|
| 일반국민 (7,000명) | 2019년 8월 1일 기준 전국의 가구 내 상주하는 만 7세 이상 가구원 | 광역지자체별 층화확률비례추출 |
| 북한이탈주민 (700명) | 2019년 8월 1일 기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전국 만 7세 이상 북한 출신 한국 국적 취득자 | 성·연령·입국시기·권역별 비례할당표집 |
| 결혼이주민 (700명) | 2019년 8월 1일 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국인과 혼인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외국인 | 성·연령·출신국적·권역별 비례할당표집 |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1쪽.

본 연구에서는 각 조사집단 특성 차이에 따른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원자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부 변인을 통제하였다.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결혼이주민 집단과 비교 과정에서 성별 변인의 교락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데이터만을 정제하였으며, 50대 이상 중·장년층 연령 분포가 큰 일반국민 집단과 그렇지 않은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민 집단의 비교를 위해 20~49세의 응답자만을 정제

5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47쪽.

〈표 3〉 분석대상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구분 | | 일반국민* (n = 1523) | 북한이탈주민 (n = 287) | 결혼이주민 (n = 474) |
|---|---|---|---|---|
| 성별 | 남 | – | – | – |
| | 여 | 1523 (100.0%) | 287 (100.0%) | 474 (100.0%) |
| 연령 | 20대 | 444 (29.15%) | 110 (38.33%) | 111 (23.42%) |
| | 30대 | 493 (32.37%) | 111 (38.68%) | 204 (43.04%) |
| | 40대 | 586 (38.48%) | 66 (23.0%) | 159 (33.54%) |
| 가구 월평균 소득 | 100만원 미만 | 5 (0.33%) | 74 (25.78%) | 1 (0.21%) |
| | 100~199만원 | 23 (1.51%) | 98 (34.15%) | 36 (7.59%) |
| | 200~299만원 | 118 (7.75%) | 42 (14.63%) | 166 (35.02%) |
| | 300~399만원 | 416 (27.31%) | 51 (17.77%) | 159 (33.54%) |
| | 400~499만원 | 406 (26.66%) | 8 (2.79%) | 81 (17.09%) |
| | 500~599만원 | 370 (24.29%) | 5 (1.74%) | 25 (5.27%) |
| | 600만원 이상 | 185 (12.15%) | 9 (3.14%) | 6 (1.27%) |
| 거주지역 *읍·면 / 동으로 구분 | 비도시 | 249 (16.35%) | 9 (3.14%) | 55 (11.6%) |
| | 도시 | 1274 (83.65%) | 278 (96.86%) | 419 (88.4%) |
| 교육수준 | 대졸 미만 | 682 (44.78%) | 223 (77.7%) | 324 (68.35%) |
| | 대졸 | 841 (55.22%) | 64 (22.3%) | 150 (31.65%) |
| 한국거주기간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조사시기(2019)에서 한국 입국년도 차감 | 5년 이하 | – | 60 (20.91%) | 186 (39.24%) |
| | 5년초과 10년 이하 | – | 97 (33.8%) | 128 (27.0%) |
| | 10년 초과 15년 이하 | – | 113 (39.37%) | 99 (20.89%) |
| | 15년 초과 | – | 17 (5.92%) | 61 (12.87%) |

* 일반국민 표본 중 PC를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 93명(6.11%),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 3명(0.2%) 포함

출처: 논의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하였다. 또한 '인터넷 활용'으로 측정된 변인을 비교하기 때문에 한달 내 인터넷을 이용해본 적 없는 응답자는 제외하였다. 그 외 기타 결측 응답자들을 정제한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에 동원된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디지털 격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이후 디지털 정보 활용에 대한 회귀 모델에 투입되었다. 거주지역 변수의 경우 읍·면 단위에 거주할 경우 비도시 지역 거주로, 동 단위에 거주할 경우 도시 지역 거주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 변수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집단은 남한최종학력과 북한최종학력이 달라 일괄적인 합산이 불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남한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입력하였고, 남한최종학력이 없을 경우('해당없음' 응답) 북한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전문학교·단과대학·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남한 최종학력 상 대졸자에 당하는 것으로 입력하였다.[53]

## 2. 측정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정보 접근, 역량, 활용 수준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디지털 접근(Digital Accessibility)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 가능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PC나 스마트폰 등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의 보유 여부로 측정된다. 연구대상인 20~49세 여성 인구 중 PC나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관계로,[54]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접근성에 대해 PC와 스마트폰 보유/비보유에 대한 이산적 측정방법 대신 반 뒤르센과 동료들(2019)이 제시한 물질적 접근성(material access) 중 디바이스 다양성

53)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최종학력과 북한최종학력 모두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응답자도 제외하였다.

54) 본 연구의 표본에서 오직 일반국민 응답자 중 96명만이 PC 혹은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았다.

(device diversity) 개념을 수정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 주변기기에 대한 보유 여부를 1과 0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합산하여 점수로 산출하였다.

디지털 역량(Digital Skill)의 경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정보를 획득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competence)을 의미하며, 반 뒤르센, 헬스퍼, 에이넌(2016)[55]의 인터넷 역량 척도(Internet Skills Scale, ISS)를 수정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PC와 모바일기기 각각에 대해 7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 ~ 매우 만족: 4점)로 측정하였으며, 문항 합산평균으로 PC/모바일 역량 점수를 산출하였다.

디지털 활용(Digital Use)은 디지털 기기를 통한 인터넷 정보의 양적/질적 활용수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마지오와 동료들(DiMaggio et al., 2004)의 프레임에 따라 디지털 활용을 자본향상적 활용과 여가적 활용으로 구분하려 한다. 디지털 기기의 자본향상적 활용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정보검색, 공공이슈 학습과 같은 사회참여 활동과 재정정보, 구직정보 탐색 등 경제 활동이 해당되며, 여가적 활용은 연락, 게임, 웹사이트 검색 등 자본 증진의 가능성이 적은 활동으로 분류된다. 신승윤과 엄석진(2019)[56]은 2017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원자료의 정보활용과 관련한 문항 중 모바일을 통한 정보 공유, 네트워킹, 미디어콘텐츠 이용 활동을 여가적 인터넷 활용 활동으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자본향상적 인터넷 활용 활동으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승윤과 엄석진의 개념 및 척도 구성을 수정 차용하여 디지털 활용에 대한 변인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신승윤과 엄석진은 각각 하위 요인에 대한 변수 산출 및 분석을 실시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 활용 목적 에

---

55) Van Deursen, A. J., Helsper, E. J., & Eynon, 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net Skills Scale (IS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9(6), 2016, pp.804-823.

56) 신승윤·엄석진, 「국내 결혼이민자의 모바일인터넷 이용활동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2권(제2호),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9, 73-109쪽.

〈표 4〉 측정

| 변수 | 문항 | 합산방법 |
|---|---|---|
| 접근<br>(기기다양성) | 1. 데스크탑 컴퓨터 보유 | 보유여부를<br>1과 0으로<br>코딩 후 합산 |
| | 2. 노트북 보유 | |
| | 3. 스마트폰 보유 | |
| | 4. 스마트패드 보유 | |
| | 5. 스마트 주변기기 보유 | |
| 역량(PC) | 1.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삭제/업데이트 | PC/모바일<br>역량 보유<br>정도를 4점<br>리커트 척도<br>측정 후<br>평균합산 |
| | 2. 컴퓨터의 유/무선 인터넷 연결 | |
| | 3. 웹 브라우저 환경설정 | |
| | 4. 컴퓨터에 다양한 외장기기 연결 및 이용 | |
| | 5.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파일 전송 | |
| | 6. 컴퓨터의 악성코드 검사/치료 | |
| | 7. 문서나 자료 작성 | |
| 역량(모바일) | 1. 모바일기기의 디스플레이/소리/보안/알람/입력방법 등 환경설정 | |
| | 2. 모바일기기 무선 네트워크 설정 | |
| | 3. 모바일기기 파일을 컴퓨터로 전송 | |
| | 4. 모바일기기의 파일/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 | |
| | 5. 앱 설치/삭제/업데이트 | |
| | 6. 모바일기기의 악성코드를 검사/치료 | |
| | 7. 모바일기기에서 문서나 자료 작성 | |
| 활용(PC)<br>– 여가적 | 1. (PC/모바일)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 게시 | PC/모바일<br>각각의 활용<br>정도를 4점<br>리커트 척도<br>측정 후<br>평균합산 |
| | 2. (PC/모바일)인터넷에서 본 콘텐츠 공유 | |
| | 3. (PC/모바일)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인터넷 이용 | |
| 활용(모바일)<br>– 여가적 | 4. (PC/모바일)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인터넷 이용 | |
| | 5. (PC/모바일)미디어콘텐츠 이용 | |
| 활용(PC)<br>– 자본향상적 | 1. (PC/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 | |
| | 2. (PC/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정책제안·평가·민원제기 | |
| | 3. (PC/모바일)인터넷을 통해 기부나 봉사 활동 수행 | |
| | 4. (PC/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투표나 여론조사·서명 등 참여 | |
| 활용(모바일)<br>– 자본향상적 | 5. (PC/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취업 및 이직(승진)활동 | |
| | 6. (PC/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창업 및 사업의 마케팅 활동 | |
| | 7. (PC/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소득증대(유지)에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습득 및 재테크 등 활동 | |
| | 8. (PC/모바일)인터넷을 통해 구매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활동 | |

초점을 맞춰 상위 요인(여가적 활용/자본향상적 활용)에 따라 변수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정보활용 측정 문항 중 정보생산 및 공유(2개 문항), 네트워킹(2개 문항), 미디어콘텐츠 이용(1개 문항)에 대한 문항을 '여가적 활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참여(4개 문항)와 경제활동(4개 문항)에 대한 문항을 '자본향상적 활용'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해당하는 디지털 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빈도를 리커트 4점 척도('전혀 이용 안 한다': 1 ~ 자주 이용한다: 4)로 PC/스마트폰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 합산 평균한 점수를 산출하였다.

연구에 투입되는 변수들은 신뢰도(크론바흐 알파) 판단 이후 합산하여 연구에 투입되었다. 모든 변수가 0.7 이상의 유의미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각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는 〈표 5〉와 같다. 홍세희,

〈표 5〉 기술통계 분석

| 변수 | 일반국민 | | | | 북한이탈주민 | | | | 결혼이주민 | | | |
|---|---|---|---|---|---|---|---|---|---|---|---|---|
| | M (SD) | 왜도 | 첨도 | 신뢰도 | M (SD) | 왜도 | 첨도 | 신뢰도 | M (SD) | 왜도 | 첨도 | 신뢰도 |
| 접근 (기기다양성) | 2.82 (0.93) | 0.33 | -0.27 | - | 2.54 (0.83) | 1.36 | 0.83 | - | 2.46 (0.73) | 1.55 | 1.7 | - |
| 역량(PC) | 2.99 (0.67) | -0.41 | -0.07 | 0.92 | 2.46 (0.58) | -0.36 | 0.77 | 0.90 | 2.31 (0.66) | -0.02 | -0.14 | 0.92 |
| 역량(모바일) | 3.24 (0.61) | -0.46 | -0.45 | 0.91 | 2.62 (0.53) | 0.19 | 1.25 | 0.89 | 2.69 (0.54) | 0.08 | 0.22 | 0.87 |
| 활용(PC) - 여가적 | 2.01 (0.73) | 0.19 | -0.87 | 0.88 | 1.96 (0.73) | 0.49 | -0.33 | 0.88 | 1.63 (0.67) | 0.88 | 0.17 | 0.87 |
| 활용(모바일) - 여가적 | 2.76 (0.58) | -0.23 | 0.06 | 0.74 | 2.49 (0.66) | 0.05 | -0.03 | 0.82 | 2.43 (0.64) | 0.11 | -0.23 | 0.71 |
| 활용(PC) - 자본향상적 | 1.65 (0.61) | 0.77 | -0.09 | 0.89 | 1.68 (0.63) | 0.61 | -0.25 | 0.92 | 1.46 (0.59) | 1.35 | 1.63 | 0.92 |
| 활용(모바일) - 자본향상적 | 1.93 (0.65) | 0.44 | -0.43 | 0.86 | 1.97 (0.68) | 0.3 | -0.33 | 0.91 | 1.80 (0.72) | 0.86 | 0.18 | 0.91 |

출처: 논의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이민규, 그리고 말릭(2003)[57]은 왜도 절댓값이 2보다 작고 첨도 절댓값이 4보다 작으면 정규분포를 가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대상 각 집단의 표본 수가 30을 넘고 있으며, 왜도와 첨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에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있어서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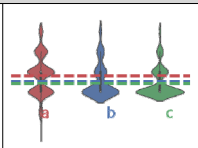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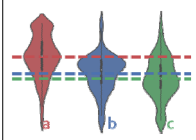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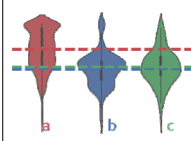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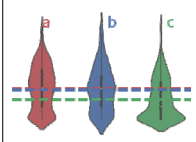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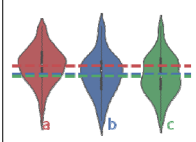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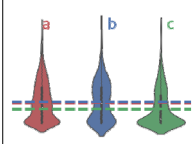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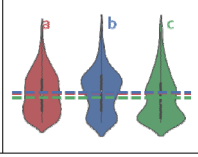
### 1. 집단별 디지털 정보접근, 역량, 활용 차이 비교

먼저 일반국민집단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집단 간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동원된 각 집단의 표본 수(n)가 30명 이상이며 앞선 기술통계분석에서 모든 변수들에 대해 왜도와 첨도 절댓값을 충족하였기에 각 집단의 정규성을 가정하였으며, 레빈(Levene) 등분산 검정을 통해 변수에 대한 이분산 여부를 검정(유의수준 0.05)하였다. 등분산이 가정될 경우 일원분산분석 및 셰페(Scheffe) 사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등분산 가정이 기각될 경우(+) 이분산을 가정한 웰치(Welch) 분산분석 및 게임스-하우웰(games-howell) 사후분석(유의수준 0.05)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 역량, 활용수준에 대해 집단별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층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고 있었다. 일반국민집단은 접근가능한 디지털 기기의 다양성, PC 이용역량, 스마트폰 이용역량, 여가적 정보 활용에 있어서 다른 모든 비교집단에 비해 우위에 있었으며, 특히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결혼이주민보다 우위에 있었다. 이

57) Hong, S., Malik, M. L., & Lee, M. K.,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2003, pp. 636-654.

〈표 6〉 집단간 디지털 격차 변수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 변수 | | 집단 | M | SD | F | η2 | p | 사후 분석 |
|---|---|---|---|---|---|---|---|---|
| (+) 접근 (기기다양성) |  | 일반국민(a) | 2.82 | 0.93 | 43.93 | 0.03 | 〈.001 | a〉b,c |
| | | 북한이탈주민(b) | 2.54 | 0.83 | | | | |
| | | 결혼이주민(c) | 2.46 | 0.73 | | | | |
| (+) 역량(PC) |  | 일반국민(a) | 2.99 | 0.67 | 237.69 | 0.17 | 〈.001 | a〉b〉c |
| | | 북한이탈주민(b) | 2.46 | 0.58 | | | | |
| | | 결혼이주민(c) | 2.31 | 0.66 | | | | |
| (+) 역량(모바일) |  | 일반국민(a) | 3.24 | 0.61 | 266.77 | 0.18 | 〈.001 | a〉b,c |
| | | 북한이탈주민(b) | 2.62 | 0.53 | | | | |
| | | 결혼이주여성(c) | 2.69 | 0.54 | | | | |
| (+) 활용(PC) - 여가적 |  | 일반국민(a) | 2.01 | 0.73 | 57.02 | 0.04 | 〈.001 | a,b〉c |
| | | 북한이탈주민(b) | 1.96 | 0.73 | | | | |
| | | 결혼이주민(c) | 1.63 | 0.67 | | | | |
| (+) 활용(모바일) - 여가적 |  | 일반국민(a) | 2.76 | 0.58 | 61.77 | 0.05 | 〈.001 | a〉b,c |
| | | 북한이탈주민(b) | 2.49 | 0.66 | | | | |
| | | 결혼이주민(c) | 2.43 | 0.64 | | | | |
| (+) 활용(PC) - 자본향상적 |  | 일반국민(a) | 1.65 | 0.61 | 21.54 | 0.02 | 〈.001 | a,b〉c |
| | | 북한이탈주민(b) | 1.68 | 0.63 | | | | |
| | | 결혼이주민(c) | 1.46 | 0.59 | | | | |
| (+) 활용(모바일) - 자본향상적 |  | 일반국민(a) | 1.93 | 0.65 | 7.89 | 0.01 | 〈.001 | a,b〉c |
| | | 북한이탈주민(b) | 1.97 | 0.68 | | | | |
| | | 결혼이주민(c) | 1.8 | 0.72 | | | | |

출처: 논의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를 통해 이주민 집단에 대한 2차 정보격차가 유의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민 사이에도 2차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PC 역량, PC를 활용한 여가적·자본향상적 활용, 그리고 모바일 기기의 자본향상적 활용 역시 북한이탈주민이 결혼이주민에 비해 유의미한 우위에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 결혼이주민에 비해 디지털 기기의 자본향상적 활용 정도가 높은 것은 이들의 이주 배경에 기인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자국의 경제적 빈곤과 정치상황으로부터 탈출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매개해 한국에 온 결혼이주민에 비해서 보다 뚜렷한 경제적·정치적 참여에 대한 동기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58]

한편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민 간 PC 역량·활용에 대한 격차 역시 이와 같은 이주배경의 차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높은 접근성·이동성·유비쿼터스를 제공하지만 PC에 비해 컴퓨팅 성능과 인터페이스에서 불리함을 갖추고 있어, 스마트폰은 사회적 활동에 유용하고 PC는 업무 활동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연구된다.[59] 한국사회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 배경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은 결혼이주민에 비해 더 많은 멤버쉽(membership)을 가지는데,[60]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결혼이주민에 비해 보다 빨리 디지털 기기를 통한 사회활동에 적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58) 손현진, 「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53호, 한국법제연구원, 2017, 109-147쪽.

59) Hyde-Clarke, N., & Van Tonder, T., "Revisiting the'Leapfrog'debate in light of current trends of mobile phone Internet usage in the Greater Johannesburg area, South Africa", *Journal of African Media Studies* 3(2), 2011, pp. 263-276.

60) 송미영,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의 멤버십(Membership)에 관한 비교연구: 충남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3집, 2012, 217-247쪽.

## 2. 디지털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앞선 분석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민의 2차 정보격차를 탐구한 데에 이어, 디지털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각 집단별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디지털 정보 접근, 역량 변수가 PC/스마트폰을 활용한 여가적/자본향상적 정보 활용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모든 모델에서 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VIF)은 5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7〉 PC와 모바일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 독립변수 | | PC를 통한 여가적 정보 활용 | | | | | | 모바일을 통한 여가적 정보 활용 | | | | | |
|---|---|---|---|---|---|---|---|---|---|---|---|---|---|
| | | 일반국민 | | 북한이탈주민 | | 결혼이주여성 | | 일반국민 | | 북한이탈주민 | | 결혼이주여성 | |
| | | β | T | β | T | β | T | β | T | β | T | β | T |
| (Intercept) | | - | - | - | - | - | | - | - | - | | - | |
| 연령 | | -.17*** | -6.97 | -.04 | -.72 | .01 | 0.29 | -.12*** | -4.74 | -.02 | -.28 | .00 | .07 |
| 소득 | | .01 | .25 | .07 | 1.19 | .02 | 0.47 | .02 | .89 | .17** | 2.88 | -.05 | -1.12 |
| 지역 (비도시 = 0, 도시 = 1) | | .07** | 2.89 | .09 | 1.55 | .07 | 1.69 | .08*** | 3.52 | .09 | 1.52 | .06 | 1.32 |
| 교육수준 (대졸미만 = 0, 대졸 = 1) | | .08** | 3.35 | .02 | .30 | .16*** | 3.77 | .01 | .22 | .00 | .04 | .07 | 1.68 |
| 접근 | 기기 다양성 | .13*** | 5.51 | .23*** | 4.09 | .08* | 2.00 | .14*** | 5.91 | .08 | 1.36 | .14** | 3.20 |
| 역량 | 역량(PC) | .37*** | 9.90 | .29*** | 3.95 | .38*** | 6.86 | .19*** | 5.12 | .20** | 2.68 | .31*** | 5.39 |
| | 역량 (모바일) | -.11** | -3.23 | -.05 | -.71 | .03 | 0.57 | .12** | 3.24 | .10 | 1.31 | .01 | .16 |
| 모형 요약 | $R^2$ | 0.22 | | 0.16 | | 0.25 | | 0.18 | | 0.13 | | 0.17 | |
| | 수정된 $R^2$ | 0.21 | | 0.14 | | 0.24 | | 0.17 | | 0.11 | | 0.16 | |
| | F | 59.34 | | 7.54 | | 22.38 | | 46.68 | | 5.97 | | 13.84 | |
| | 유의확률 | *** | | *** | | *** | | *** | | *** | | *** | |
| | DW | 1.74 | | 1.63 | | 1.60 | | 1.63 | | 2.00 | | 1.48 | |

〈표7〉 PC와 모바일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계속)

| 독립변수 | | PC를 통한 자본향상적 정보 활용 | | | | | | 모바일을 통한 자본향상적 정보 활용 | | | | | |
|---|---|---|---|---|---|---|---|---|---|---|---|---|---|
| | | 일반국민 | | 북한이탈주민 | | 결혼이주여성 | | 일반국민 | | 북한이탈주민 | | 결혼이주여성 | |
| | | β | T | β | T | β | T | β | T | β | T | β | T |
| (Intercept) | | - | - | - | | - | | - | - | - | | - | |
| 연령 | | -.11 *** | -4.18 | -.01 | -0.25 | .05 | 1.13 | -.08 ** | -3.13 | .11 | 1.87 | -.01 | -.33 |
| 소득 | | .00 | .11 | .09 | 1.59 | -.08 | -1.76 | .01 | .41 | .13 * | 2.27 | -.13 ** | -2.95 |
| 지역 (비도시 = 0, 도시 = 1) | | .09 *** | 3.74 | .10 | 1.68 | .07 | 1.64 | .13 *** | 5.28 | .14 * | 2.47 | .05 | 1.20 |
| 교육수준 (대졸미만 = 0, 대졸 = 1) | | .13 *** | 4.92 | .09 | 1.57 | .15 *** | 3.51 | .11 *** | 4.09 | .04 | .67 | .17 *** | 3.94 |
| 접근 | 기기 다양성 | .11 *** | 4.36 | .19 ** | 3.32 | .10* | 2.31 | .12 *** | 4.86 | .11 | 1.82 | .21 *** | 4.67 |
| 역량 | 역량(PC) | .27 *** | 7.07 | .26 ** | 3.49 | .33 *** | 5.70 | .16 *** | 4.03 | .17 * | 2.22 | .32 *** | 5.63 |
| | 역량 (모바일) | -.12 ** | -3.12 | -.06 | -.81 | -.03 | -.47 | -.07 | -1.91 | .08 | 1.07 | -.24 *** | -4.36 |
| 모형 요약 | $R^2$ | 0.14 | | 0.14 | | 0.18 | | 0.09 | | 0.12 | | 0.18 | |
| | 수정된 $R^2$ | 0.13 | | 0.12 | | 0.17 | | 0.09 | | 0.10 | | 0.17 | |
| | F | 34.05 | | 6.34 | | 14.58 | | 22.53 | | 5.34 | | 15.00 | |
| | 유의확률 | *** | | *** | | *** | | *** | | *** | | *** | |
| | DW | 1.59 | | 1.78 | | 1.40 | | 1.39 | | 1.91 | | 1.26 | |

*** p〈0.001, ** p〈0.01, * p〈0.05

출처: 논의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여가적 정보활용(PC)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은 결혼이주여성($R^2$ = .25), 일반국민($R^2$ = .22), 북한이탈주민($R^2$ = .16)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모바일의 경우 일반국민($R^2$ = .18), 결혼이주여성($R^2$ = .17), 북한이탈주민($R^2$ = .13)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향상적 정보활용의 경우, PC 활용은 결혼이주민($R^2$ = .18), 일반국민($R^2$ = .14), 북한이탈주민(R2 = .14)의 순서로 설명력이 높았으며, 모바일의 경우 결혼이주민($R^2$ = .18), 북

한이탈주민($R^2$ = .12), 일반국민($R^2$ = .09)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민의 모델이 모두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표 8〉 회귀분석을 통해 추출된 유의미한 변인들(표준화된 계수의 크기에 따른 정렬)

| | | PC를 통한 여가적 정보 활용 | 모바일을 통한 여가적 정보 활용 | PC를 통한 자본향상적 정보 활용 | 모바일을 통한 자본향상적 정보 활용 |
|---|---|---|---|---|---|
| 일반국민 | + | PC 이용역량<br>접근기기 다양성<br>대졸여부<br>도시거주 | PC 이용역량<br>접근기기 다양성<br>모바일기기<br>이용역량<br>도시거주 | PC 이용역량<br>대졸여부<br>접근기기 다양성<br>도시거주 | PC 이용역량<br>도시거주<br>접근기기 다양성<br>대졸여부 |
| | – | 연령 모바일기기<br>이용역량 | 연령 | 모바일기기<br>이용역량 연령 | 연령 |
| 북한<br>이탈주민 | + | PC 이용역량<br>접근기기 다양성 | PC 이용역량<br>소득 | PC 이용역량<br>접근기기 다양성 | PC 이용역량<br>도시거주 소득 |
| | – | – | – | – | – |
| 결혼<br>이주민 | + | PC 이용역량<br>대졸여부<br>접근기기 다양성 | PC 이용역량<br>접근기기 다양성 | PC 이용역량<br>대졸여부<br>접근기기 다양성 | PC 이용역량<br>접근기기 다양성<br>대졸여부 |
| | – | – | – | – | 모바일기기<br>이용역량 소득 |

출처: 논의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각 회귀 모델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을 정리하면 위 〈표 8〉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PC 역량은 모든 종류의 디지털 정보활용 변인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접근기기 다양성, 대학 졸업 여부, 도시 거주 여부 등의 변수가 디지털 정보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국민 집단의 경우 모든 종류의 디지털 활용 변인에 있어 연령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민 집단에서는 연령이 유의하지 않았다. 외부 문화권에서 이주해 온 다문화 집단에게 있어, 연령의 높고 낮음보다도 한국어 능력이나 문화적응과 같은 요인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모바일기기 이용역량 변인은 일반국민 집단의 PC 여가적/자본향상적 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편 결혼이주민의 자본향상적 모바일 기기 활용수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PC와 모바일 기기의 활용 맥락에 차이가 있어 모바일 기기에 대한 역량이 P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혼이주민의 경우 앞선 분석에서 모바일 기기 이용역량 자체는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낮지 않았으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자본향상적 활동수준은 낮게 나타났는데, 결혼이주민이 모바일 기기를 잘 다룰 수 있더라도 모바일 기기의 유희적·여가적 활용 외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정보 활용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유의한 독립 변인의 패턴을 통해 종속변수를 구분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PC 활용 / 모바일기기 활용으로 구분되는 반면 결혼이주민은 PC 활용+모바일기기의 자본향상적 활용 / 모바일기기의 여가적 활용으로 구분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PC에 대한 활용을 기본으로 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모바일 기기에 대한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결혼이주민은 스마트폰 등 보편적 모바일 기기를 통한 여가적 활동을 기본으로 하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PC에 대한 활용, 또는 자본향상적 정보활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61].

## V. 결론과 함의

디지털 포용은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접근, 기회 및 기술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두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디지털 포용'을

61) Van Dijk, J. A., "Digital divide: Impact of acces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edia effects*, 2017, pp. 1-11.

핵심 아젠다로 내세우며 구체적인 정책 전략을 제시하였던 2020년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은 디지털 사회에 대한 참여 동기 유인과 디지털 혜택을 능동적으로 찾아 누리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별적인 디지털 접근성, 활용역량의 제고를 넘어 각 요인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보편적 디지털 시민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문화 이주민 역시 소수계층으로서 포용정책의 대상으로 포섭이 필요하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특정 경제적 영역으로만 이민을 받을 뿐, 사회적·정치적 영역에서는 쉽게 동화되지 않는 체재이다.[62] 이러한 다문화 이주민의 사회적 소외 해소를 위해, 본 연구는 주요한 변인 중 하나인 디지털 격차에 초점을 맞춰 그 양상을 탐구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반국민과 다문화 집단(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의 디지털 격차를 탐색한 결과,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민은 대부분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에 비해 낮았고,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민 집단 사이에도 PC 관련, 자본향상적 디지털 기기 활용과 관련된 2차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집단별로 디지털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결혼이주민 집단의 모델이 설명력이 높았으며 대부분의 모델에서 PC 역량과 접근가능한 디지털 기기의 다양성은 PC/모바일을 통한 디지털 정보 활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집단을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서 지속 모니터링하여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국민 집단과 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주민 사이에 1·2차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투입된 20~49세 여성은 일반적으로 높은 디지털 역량과

62) 김미나,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연구」,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제47권(제4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 193-223쪽.

활용을 갖춘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실제로 이주민 집단이어도 PC/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역량/활용 층위에서의 격차가 발견됨에 따라 기존 4대 정보소외계층 위주로 이루어지던 디지털 포용 정책에 있어, 다문화 집단을 포함한 문화적 포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PC 역량과 PC를 통한 정보 활용에 있어 열위에 있었는데, 이에 따라 결혼이주민의 PC 역량을 함양하고 PC를 통한 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이주민 대상으로 기기 접근성보다 PC 역량/활용 증진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 PC에 대한 이용 역량은 PC/모바일을 통한 디지털 정보 활용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보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면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정보격차 연구 및 지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스마트폰에만 의존한 정보접근이 낮은 디지털 역량 및 활용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63]도 있듯이 PC를 활용한 정보활용 증진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 집단의 경우 사회에서의 자본향상적 정보 활용이 사회 적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다문화 집단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은 단순한 기기 접근성 지원이 아니라 PC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생산적·경제적 활동을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 이주민 사이에서도 디지털 격차의 특성이 달라지며, 이를 반영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PC 역량과 활용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모바일 기기 활용이 증가했다. 반면 결혼이주민의 경우 모바일 기기의 여가적 활용은 크게 낮지 않으나, PC 활용이나 모바일 기기의 자본향상적 활용은 교육 수준을 갖출 경우 높아졌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특

63) Correa, T., Pavez, I., & Contreras, J., "Digital inclusion through mobile phones?: A comparison between mobile-only and computer users in internet access, skills and use.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3(7), 2020, pp. 1074-1091.

성상 PC를 위주로 한 업무 및 자본 획득 활동을 우선하며, 소득수준이 충족될수록 모바일 기기의 활용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결혼이주민의 경우 결혼을 매개로 한 이주민인 만큼 자본 획득에 큰 지향을 두고 있지 않고, 가구소득을 책임지는 가구주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여가적 정보 활용에 익숙하지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 기기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가치 취득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일반국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디지털 포용 정책에 있어 다문화 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기존 다문화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 온 결혼이주민 집단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 집단 내 정보격차를 확인하고 각 집단의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할 수 있었다. 특히 여가적 정보 활용과 실질적인 가치 생산과 관련한 정보 활용 변인을 구분하여 집단별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집단별로 디지털 기기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양상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의 방향성을 제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첫째로 2차 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문항과 항목 구분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선행 연구의 개념 구성을 그대로 차용하지 못하고 척도를 수정 채택하여 변수를 산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선행적 개념 구성에 근거한 모델 비교를 통해 더욱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로, 연구모델의 투입 변수가 한정적이라는 점이 있다. 연구에 사용한 원자료에는 각 집단별로 디지털 정보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인(한국거주기간, 직업, 가구구성형태 등)이 존재하였으나,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 모델에 투입하는 변인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공통적으로 측정된 변수들만을 투입하게 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인구사회학적·심리적 변인을 연구모델에 투

입하고 높은 모델 설명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보격차 및 소외 심화의 양상을 살펴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에 의한 교락을 피하기 위해 2019년「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팬데믹 기간 혹은 그 이후의 디지털 격차를 탐구하는 것 역시 유의미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기봉, 「디지털 포용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32권(2호), 한양법학회, 2021.

강혜정·김석주, 「다문화 정보격차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4권(2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20.

고재훈,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 결정요인 분석」, 『한국이민학』 제3권(제2호), 한국이민학회, 2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부처합동,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2020.

권금상,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이주여성' 재현의 사회적 의미: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6권(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3.

김미나,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연구」,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제47권(제4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

김상찬·김유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43집, 한국법학회, 2011.

김세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디지털 기기 이용과 사회적 지지의 형성」, 『문화와 융합』 제41권(제3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김세현, 「한국의 디지털 정보격차 영향요인 탐색: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적용」, 『한국사회학회 2019년 정기사회학대회』, 서울: 고려대학교, 2019.

김세현·이혜수,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기기 사용과 한국사회 적응: 사회적 지지와 한국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20권(제1호), 한국정보사회학회, 2019.

김영미,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 역량과 활용에 관한 연구: 일상생활 만족도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보사

회와 미디어』 제21권(제3호), 한국정보사회학회, 2020.
김현숙, 「부산지역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통합과정에 대한 연구」, 『2006 전국사회학 대회』, 서울: 서울대학교, 2006.
김현경,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질적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9권(제1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김효정, 「결혼이민자 여성소비자의 디지털정보격차지수 결정 요인: 연령별 차이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56권(제3호), 대한가정학회, 2018.
두문영·조진경, 「중국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생애사 연구」, 『여성학연구』 제27권(제1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7.
박지혜, 「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주민여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1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서울: 서울대학교, 20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1년 5월호)」, 2021.
배영임, 「기술혁신 관점의 포용적 성장 정책 연구 : 디지털 포용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경기연구원, 2022.
손현진, 「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53호, 한국법제연구원, 2017.
송미영,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의 멤버십 (Membership) 에 관한 비교연구: 충남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3집,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2.
송은희, 「탈북자의 남한사회에서의 경제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72호, 한국동북아학회, 2014.
신승윤, 「신 (新) 소외계층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신승윤·엄석진,「국내 결혼이민자의 모바일인터넷 이용활동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제22권(제2호),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9.

심승우,「이주민의 포용과 다문화 정치통합의 전략」,『디아스포라연구』제6권(제2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2.

엄태완,「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경험 연구: 생존과 일상의 경계를 넘어」,『한국사회복지행정학』제18권(제1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6.

오대영,「여성결혼이민자의 미디어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인구사회학적 요인, 한국어 능력, 미디어 이용 요인을 중심으로」,『방송과 커뮤니케이션』제14권(제2호), 문화방송, 2013.

윤인진,「북한 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 지원 정책」, 파주: 집문당, 2009.

이민상·김동욱·조영민,「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적응이 한국 적응에 미치는 영향」,『한국사회와 행정연구』31권 2호, 2020.

이홍재,「결혼이민자의 모바일 정보격차가 한국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2차 정보격차 요인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제28권(제1호), 한국정책학회, 2019.

임광현,「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격차 해소전망에 대한 사회적 배경에 따른 인식차이분석」,『한국정책연구』제13권(제3호), 경인행정학회, 2013.

장명선·김선욱,「이주여성의 취업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결혼이민여성과 북한이탈주민여성을 중심으로」,『공공사회연구』제7권(제1호), 한국공공사회학회, 2017.

정다운,「스마트폰 이용이 북한이탈주민의 이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정준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 영향요인 연구」,『한국정책학회보』제26권(제1호), 한국정책학회, 2017.

최두진·김지희, 「정보격차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산적 정보활용 방안」,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최한용, 「스마트 격차와 정보 격차의 생태계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5권(제6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황용석·이현주·박남수·이원태,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격차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6권(제2호), 한국언론학회, 2012.

Alam, K., & Imran, S., "The digital divide and social inclusion among refugee migrants",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28(2), 2015.

Caidi, N., & Allard, D., "Social inclusion of newcomers to Canada: An information problem?",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7(3), 2005.

Churchill, S. A., & Smyth, R., "Ethnic diversity, energy poverty and the mediating role of trust: Evidence from household panel data for Australia", *Energy Economics* 86, 2020.

Correa, T., "Digital skills and social media use: how Internet skills are related to different types of Facebook use among 'digital native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9(8), 2016.

Correa, T., Pavez, I., & Contreras, J., "Digital inclusion through mobile phones?: A comparison between mobile-only and computer users in internet access, skills and use.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3(7), 2020.

DiMaggio, P., Hargittai, E., Celeste, C., & Shafer, S., "From unequal access to differentiated use: A literature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on digital inequality", *Social inequality* 1, 2004.

Dobransky, K., & Hargittai, E., "The disability divide in internet access and use",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9(3), 2006.

Gómez, D. C., "The three levels of the digital divide: barriers in access, use and utility of internet among young people in Spain", *Interações: Sociedade e as novas modernidades* 34, 2018.

Hargittai, E., & Hinnant, A., "Digital inequality: Differences in young adults' use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 research* 35(5), 2008.

Hong, S., Malik, M. L., & Lee, M. K.,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2003.

Hyde-Clarke, N., & Van Tonder, T., "Revisiting the'Leapfrog'debate in light of current trends of mobile phone Internet usage in the Greater Johannesburg area, South Africa", *Journal of African Media Studies* 3(2), 2011.

Liao, S. C., Chou, T. C., & Huang, C. H., "Revisiting the development trajectory of the digital divide: A main path analysis approach",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79, 2022.

Scheerder, A., van Deursen, A., & van Dijk, J., "Determinants of Internet skills, uses and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second-and third-level digital divide", *Telematics and informatics* 34(8), 2017.

Shah, S. F. A., Hess, J. M., & Goodkind, J. R., "Family separation and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on the mental health of refugee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1(9), e14171, 2019.

Tsetsi, E., & Rains, S. A., "Smartphone Internet access and use: Extending the digital divide and usage gap", *Mobile Media & Communication* 5(3), 2017.

Lee, H.J., Park, N.S., & Hwang, Y.S., "A new dimension of the digital

divide: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roadband connection, smartphone us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Telematics and Informatics* 32(1), 2014.

Liao, S. C., Chou, T. C., & Huang, C. H, "Revisiting the development trajectory of the digital divide: A main path analysis approach",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79, 2022.

Lythreatis, S., Singh, S. K., & El-Kassar, A. N., "The digital divide: A review and future research agenda.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21359, 2021.

Molnár, S., "The explanation frame of the digital divide", 2003.

Pearce, K. E., & Rice, R. E., "Somewhat separate and unequal: Digital divides, social networking sites, and capital-enhancing activities", *Social Media+ Society* 3(2), 2017.

Van Deursen, A. J., & Van Dijk, J. A., "The digital divide shifts to differences in usage", *New media & society* 16(3), 2014.

Van Deursen, A. J., & Helsper, E. J., "The third-level digital divide: Who benefits most from being online?",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annual*.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2015.

Van Deursen, A. J., Van Dijk, J. A., & Peter, M., "Increasing inequalities in what we do online: A longitudinal cross sectional analysis of Internet activities among the Dutch population (2010 to 2013) over gender, age, education, and income", *Telematics and informatics* 32(2), 2015.

Van Deursen, A. J., Helsper, E. J., & Eynon, 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net Skills Scale (IS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9(6), 2016.

Van Deursen, A. J., Helsper, E., Eynon, R., & Van Dijk, J. A., "The compoundness and sequentiality of digital ineq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1, 2017.

Van Deursen, A. J., & Van Dijk, J. A., "The first-level digital divide shifts from inequalities in physical access to inequalities in material access", *New media & society* 21(2), 2019.

Van Dijk, J. A., "Digital divide: Impact of acces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edia effects*, 2017.

Wei, K. K., Teo, H. H., Chan, H. C., & Tan, B. C., "Conceptualizing and testing a social cognitive model of the digital divid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2(1), 2011.

「'이주민'이라서 차별받는 사람들」, 『이로운넷』, 2021년 03월 03일자.

## 〈ABSTRACT〉

# A Study on the Digital Divide Between Immigrants and General Population of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North Korean Refugees and Marriage –

Cho, Kyung Jae · Hwang, Yong Suk

Digital inclusion is being emerged as an important keyword for social policy. In South Korea, digital inclusion policies are mostly for bridging the digital divide of 4 digital disadvantaged class(the aged / the disabled / low-income class / farmers and fishermen). However, as the multiculturalism of Korean society progresses, the government's inclusion policy also needs to expand its frame to embrace racial minorities.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of「2019 Digital Divide Survey」data from NIA, this study explored the digital divide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foreign marriage immigrants, which are the major groups of multicultural populations in South Korea. According to one-way ANOVA results, digital access & skill & usage divide exists between general population and multicultural groups of South Korea, and foreign marriage immigrant group's PC-oriented digital skill and usage levels were even lowered than those of North Korean refugees. After exploring each group's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to capital-enhancing/recreational use of PC and Mobile device through multiple regression, we found that PC skill and device diversity level is the key factor of enhancing people's digital use. In addition, North Korean refugees'

mobile device use is affected by income level, and foreign marriage immigrants' capital-enhancing use and PC use is affected by education level. This study helps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foreign marriage immigrants in South Korea, and contributes to finding implicit point of digital inclusion support.

Key Words : Digital divide, Digital inclusion, Digital use, Foreign marriage immigrant, North Korean refugee